

백두대간 육십령 정원화 탄력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산지관리법 개정안 통과… 장수군, 산림정원 조성 추진 동력 마련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장수군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산지관리법 개정안에서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은 2026년까지 예산 450억원(국비)를 투입해 전북 동부권의 백두대간 중심지역 자연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한 산림정원을 조성한다.

산림정원에는 육십령 정원센터, 테마 정원(빛, 물, 꽃, 금, 놀이) 및 숲길(육십령 이음길, 순환로, 진입로 및 쉼터 등) 조성, 육십령 캠핑장(카리반, 글램핑 등) 및 기타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사진은 육십령 모습)

이번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군은 영호남이 맞닿은 육십령 일원 정원화로 영호남 상생협력과 생활권 장벽을 해소하고, 전국 유품인 남녀유산-서봉 겨울철 상고대와 백두대간 종주 등반에 경남 함양군 덕유교육원과 연계돼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등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막현대 지역 협안사업

의 실시래를 풀어준 안호영 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본 개정안은 정원 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의 아름다운 백두대간 육십령을 보다 더 잘 활용하여 경제적·공익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 한정하며, 시장상 인회 기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업 사실을 확인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 확인서 등을 제출해 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과 겸종이 어려워 지원 받을 수

없으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지원이 미등록 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안정 뿐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최우수센터 선정

사단법인 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가 전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선)의 도내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군보조금 외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공모사업비를 투입, 기업과 기관,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와

책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혜택은 물론 고령화 사회 극복과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했으며 일부 둘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 특히 방역활동 및 맞춤형 봉사활동들의 공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이동빨래방차운영, 맛나눔사단(밀반찬 사업), 해노리기족봉사단(친환경제품 사용활동),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력난에 빠진 농가를 돋기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

농촌일손돕기 서울시와 협력

무주군,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8명 영농현장에 투입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력난에 빠진 농가를 돋기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 농촌일자리 지원을 위해 무주군은 25일 서울시로부터 인력 8명을 지원받았으며 6월 3일까지 관내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 농가에게 투입할 예정이다.

농촌 일자리 참여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무주에 들어왔으며 날마다 벌벌 여부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인력 수급과 교통편(서울↔무주) 제공을 맡았으며 무주군(구 천동농협인력증개센터)이 농가일손 수요조사와 연계, 상호보합 기업, 현장 교육, 지역 내 이동(숙소↔농가)을 돋

는다. 이들이 무주에 머무르는 9박 10일간의 숙박과 식사는 무주군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 사업비로 지원하며 임금은 농가에서 지급한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청 내 농업인력 지원 상황과 농촌인력증개센터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 인력 수급을 허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과의 교류, 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통해 일손돕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무주군은 서울시와 지난 2017년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체류형 귀농지원과 반딧불 농·특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기맹점 2개소 지정

진안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임숙)는 25일 '치매안심미미'인 진안읍에 위치한 약국 2곳을 치매안심기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안심기맹점이란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치매안심기맹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25일 지정된 '봄약국', '세계로 약국'을 포함해 15개소다.

치매안심기맹점으로 지정된 가맹점은 치매관련 정보 전달하기, 치매조기검진 권유하기, 치매의심 노인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기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활동을 하며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치매안심기맹점은 사업자등록 번호 가운데 숫자코드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 홍보 행사 실시

진안군은 5월 11일~6월 14일 까지를 금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선다.

군은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을 포함해 금연 뮤지컬공연, 금연독려 플래카드 게첨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25일에는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라는 금연 슬로건을 내걸고, 시외버스터미널, 진안 시장 상가 등을 돌며 금연의 중요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및 음식점 등을 순회하며 금연홍보와 금연구역에 서의 흡연행위를 지도할 예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기 흡연예방 교육, 뮤지컬공연 등도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